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9년 7월 28일(주일) 제1256호

하용조 목사 소천 8주기

“그리울수록
더욱
새로워지겠습니다”



7월 29일~8월 3일 '하용조 목사 추모기간' ... 새벽예배 설교영상 상영
하용조 목사 추모예배, 서빙고 본당(7월 31일), Acts29비전빌리지(8월 2일)

오는 8월 2일(금)은 하용조 목사 소천 8주기다. 이에 따라 온누리교회는 내일(29일)부터 8월 3일(토)까지를 '하용조 목사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하용조 목사를 추억하고 추모한다. 이 기간 동안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 새벽예배에서는 하용조 목사의 생전 설교영상이 상영된다.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 새벽예배 1부 5시 20분, 2부 6시 30분, 나머지 캠퍼스는 자체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드린다.
하용조 목사 소천 8주기 추모예배는

7월 31일(수) 오후 7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과 8월 2일 오전 10시 30분 Acts29비전빌리지 하용조 목사 기념관에서 드린다.
7월 31일 서빙고 본당에서 드리는 추모예배는 하용조 목사를 추모하고 기억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드린다. 이재훈 담임목사가 사회를 보고, 조항진 장로 대표기도, 이태웅 목사(한국해외선교회 글로벌리더십포커스 원장)가 설교한다.
8월 2일 Acts29비전빌리지 하용조

목사 기념관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용조 목사 가족중심으로 드린다. 박종길 목사(서빙고 온누리교회)가 사회를 보고, 정진호 장로(당회서기)가 대표기도, 이태웅 목사가 설교한다.
하용조 목사는 지난 2011년 8월 2일 향년 65세를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겼다. 하용조 목사는 1976년 연예인교회 개척, 1980년 12월 두란노서원 창립, 1985년 10월 온누리교회를 세웠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차세대 여름캠프 한창

‘모세_세 가지 선물’ 8월 24일까지

차세대사역본부 여름캠프가 한창이다. ‘모세(Moses)_세 가지 선물’을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올해 차세대 여름캠프는 지난 6월 30일(토) 예꿈2부)부터 시작됐다. 오늘(28일)은 서빙고 꿈팡 유년1, 2부, 초등1부, 소

년1, 2부, 파워웨이브1, 2부, 양재 꿈팡 유년2부, 초등2부, 소년2, 3부, 수원 파워웨이브 고등부, 대전 꿈팡 유년부, 파워웨이브 중고등부, 인천 꿈팡 유년부, 초등부, 남양주 꿈팡 초등부, 강동 파워웨이브 중고등부가 여

름캠프를 마치고 돌아온다. 차세대 여름캠프는 8월 24일 헤브리키즈(인 천 꿈팡)가 대미를 장식한다.
차세대 아웃리치도 한창이다. 9월 27일(금)부터 10월 1일(화)까지 부천 유치부의 꿈 온누리교회 아웃리치가 39팀 6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주님 안에서 평안을 찾아 하루하루 잘 지내시겠지요?

저도 매일 주님과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인도해 주시는 대로 좁은 길, 가시밭 길, 시원한 길, 더운 길을 따라 다니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용조 목사님께서 하늘나라로 떠나신 날이 조금 더운 날이었기에 해마다 기일이 되면 성도님들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곳은 아주 따가운 햇볕이 내리 쏘이는 모하비 사막이지만 아침마다 주의 은혜가 새롭고 또 신기하답니다. 이곳에 와서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살면서, 함께 먹고 마시는” 생활을 실감했습니다. 작은 집에 살지만 깨끗이 치워놓고 사니까 마음이 넉넉하고 편이 있어서 좋습니다.

어제도 담장 길을 걸으며 별을 쳐다보았습니다. 동쪽하늘에서 유난히도 빛나는 그 별의 이름은 알 수가 없지만 주님의 창조하신 능력을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달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처음에는 달이 너무 큰 것이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했었지만, 요즘에는 시원한 밤바람이 이불처럼 휘감고 지나가는 그 길을 따라서 다니기도 합니다. 왜 달이 나만 따라 다니는지 참 정겹고, 고맙기까지 하나요.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사고를 당해서 가든지, 아파서 가든지,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닳아서 가든지 하나님께 가는 길은 나이가 들면 가게 되어 있으니, 매일의 기도 속에서 주님께 가는 날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하 목사님께서 다 하시지 못하고 가신 일을 하다가 가야 된다고 말해왔습니다.

하 목사님은 몸이 아팠어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감사로, 기쁨으로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마, 하용조 목사님이 조금 힘들어 하고 계시던 일들을 마무리 해드리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고, 주님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저처럼 부족한 사람도 써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지요. 어떤 때는 그분이 저를 쓰고 계신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제 혈육의 친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보혈의 피로 맺어진, 그분의 친딸로서의 특권과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으니까요. 실제적인 일상의 생활은 조금씩 훈련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침에 눈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제가 할 일들을 생활에정표 같이 만들어 놓고 타이머를 사용하면서 살아도, 시간이 모자라서 자는 시간이 늦어지곤 한답니다. 이제 나이를 못 속이든지 잊어버리거나, 찾아다니거나, 한눈을 팔거나 하는 일들이 저를 괴롭혀서, 모든 물건을 제자리에 정돈해놓고 사는 훈련을 많이 합니다.

제 나이가 되고 보니 먹고 사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지더라고요. 끼니도 간단히 준비해서 손쉽게 상을 보고, 치우곤 하지요. 요즘에는 유튜브에 간단한 조리법도 많아서 크게 도움이 됩니다. 다만 손님들이 오시면 제가 평소 먹는 음식이 너무 간단해서 대접하기가 부끄럽기도 해요.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거주와 여행의 자유가 있어서 감사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겁이 납니다. 모두 힘을 합하여 나라와, 국민들과, 위정자들이 정신을 똑똑히 차리고 판단을 정확히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에 살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 년에 두 번 한국에 가는 것과 일 년에 두 번 몬테네에 있는 작은 동굴에 치료차 가는 것을 꼭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까운 강가에 가서 앉아 쉬는 여행과 근처의 산에 있는 호반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쉬다가 오는 등 몇 가지를 정해놓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하기도 하지만 자연 속에 있으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더욱 감사하게 느껴지니까요. 성도님들도 계획을 해서 정기적으로 주변의 산이나 공원에 가서서 잠시라도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바빠서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한 번 해 보니까 더욱 시간을 아껴서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아주 작아도 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이라도 열심을 내서 봉사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권사라 부르시며 잘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뿐이지요. 성도님들, 이제 며칠 후 직접 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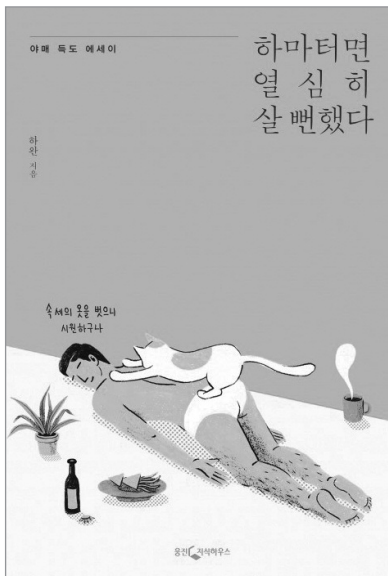
안녕히 계세요.

이행기 드림



책 읽어주는 목사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하완 저 | 웅진지식하우스 | 15,000원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는 ‘하완’이라는 작가가 자신의 삶과 사회상을 반영해서 쓴 에세이다. 이미 중년인 작가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이 살아온 삶의 경험을 나누면서 20~30대가 쫓고 있는 삶의 목표인 ‘취업’, ‘집’, ‘돈’ 등의 주제를 남들과 다른 시선으로 다루고 있다. 이 책의 시작은

이렇다.

“한 번쯤은 이렇게 살아보고 싶었다. 애쓰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동등.”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문구가 있다. 삶에서 속도와 노력이 제대로 된 방향을 만나지 못한다면 허사가 될 뿐이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으며 명령하신 대로 준행했다. 방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완성되었지만, 동력도 없고, 조타도 할 수 없고 그저 동등 떠다닐 뿐이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가고 싶은 곳에 닿을 수 없고, 머물고 싶은 곳에 머물 수 없는 방주는 절망적이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스스로 머물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를 입지 않았을까? 우리는 주 안에 속해 있을 때 비록 동등 떠다니는 신세고, 아무것도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상태의 방주일지라도 평안하며, 안전하다.

“원래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 노력으로 다 된다는 말도 거짓말이지. 알겠어? 네 노

력이 부족한 탓이 아니라는 이야기야.”

작가는 노력하지 않아서 인생이 힘들고, 노력이 나를 배신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고, 노력한 만큼 보상이 없을 수도, 노력한 것에 비해 큰 성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 사실을 인정하면 괴로움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작가의 주장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은 주인이 달란트를 나눠줄 때 서로 다른 달란트를 나누어 준 것처럼, 서로 다른 출발선에서 출발한 것처럼 보인다. 불공평하게 시작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노력해도 되지 않기에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 사람은 노력의 결과로 인생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의 결과로 인생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열심히 살아서 억울하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열심히 살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봐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삶의 태도이다.

그런데 작가는 “열심히 살면 힘들다 그건 건디는 삶이니까”라며 열심히 살지 말

고 재밌는 인생을 살라고 이야기 한다. 이 역시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건디는 삶이 반드시 힘든 것일까? 열심히 살면 반드시 힘든 것일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야 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건디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헌신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작가는 열심히 살고 나서 억울해 하지 말고, 재밌게 살고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이 글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열심히 살라고 이야기 하고 싶다. 열심히,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삶을 살 것을 부탁하고 싶다. 세상에서 나의 노력은 아무런 결과를 남기지 못하고 때로는 노력에게 배신감을 느낄만한 결과를 손에 쥐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의 노력과 헌신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고, 그 영혼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명창 목사
(강남D공동체, 하나공동체)



Q4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땅 밟기 사역(기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땅 밟기 사역은 주님의 밝은 얼굴을 보며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땅 밟기 사역을 통해 우리는 악한 영의 세력과 영적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영적전쟁은 사람을 대상으로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땅 밟기 사역의 목적을 바로 알고 올바른 방법으로 실천할 때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땅 밟기 사역은 주님의 밝은 얼굴을 보며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다. 한국 교회는 여름이면 산 넘고 바다 건너 국내외로 아웃리치를 떠난다. 도착하는 순간 고대하고 기대했던 사역지 땅에 발을 붙임과 동시에 그 땅을 밟아가며 선교사역이 시작된다. 돌아오는 순간까지 사역지 땅을 밟으며 사역하게 된다. 그렇다면 성경은 처음이요, 끝인 땅 밟기 사역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구약성경은 “여호와께서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주시리라 약속하셨다”(신 11:24-25)고 기록했다. 이 약속은 영적전쟁으로 해석되어 어둠의

악한 영들의 세력이 그리스도인들의 땅 밟기를 통하여 빛의 영역으로 변화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신약성경도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엡 6:12), “건고한 진”(고후 10:4)이라고 말씀한다. 이처럼 땅 밟기 사역은 성경에서 제시하는 목적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 땅 밟기는 악한 영의 세력과 대적하는 영적전쟁의 한 전략이다. 즉,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치고 사람들의 세계관을 변화시킨다. 또 땅 밟기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로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한다. 나아가 사회변혁(문화와 사회에 뿌리박힌 악한 체계)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영적전쟁은 사람을 대상으로 치르는 것이 아니다. 영적전쟁 대상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에 맞는 바른 실천이 옮겨지지 않을 때 사역현장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공격적이고 전투적인 방법으로 현지인을 자극하거나 타종교를 폄하해서는 안 되고, 십자가의 도(고전 1:18)의 희생적 섬김을 지양

해야 한다. 또한 강자의 모습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빌 2:3)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사역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사역하는 현장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끝없는 푸른 초원의 길가 한복판에 있다. 여름에는 푸른 카펫 한복판에서, 겨울에는 하얀 카펫 한복판에서 땅을 밟고 사역을 한다. 아웃리치팀이 수도에서 이곳 CH까지 차량을 이용해서 오려면 20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물론 비포장도로다. 시골마을 방문까지 하면 대략 며칠을 차 안에서만 보내야 한다. 거리는 약 2000km 이상이다. 각 마을을 방문하면서 연약한 교회를 격려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부지만 사랑과 섬김이 가득한 한 번의 예배를 통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

아웃리치팀들은 낯선 땅에 첫 발을 딛는 순간부터 사역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지나오는 모든 땅을 밟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주의 이름으로 결박과 묶임이 끊어지기를 예배한다. 이처럼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어디 있을까 싶지만 허비하는 사랑과 섬김으로 인해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온다. 이렇

게 두세 사람이 모여 교회가 세워진다. 각 마을에 교회들이 세워져 예배를 드리고 있다.

땅 밟기 사역을 위한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땅 밟기라는 용어는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상대를 ‘밟아 억압한다’, ‘밟아 쓰러뜨린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땅 밟기 사역을 통해 세상의 악한 영들을 밟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먼저는 내 거짓된 자아를 밟아 그리스도께 집중하자.

둘째, 내 거짓된 공동체를 밟아 분열과 헝기 등을 주님의 못 박힌 손에 내어 드리자.

셋째, 내 왕좌를 밟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마 7:13), 십자가의 길을 밟고 지나가는 사역현장에서 주님의 밝은 얼굴(시 119:135)을 대면했으면 한다.



김경찬 선교사
(동아시아 A국)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7가지 치명적인 죄(4) - 나태

마태복음 25:14~30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고, 거부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악하고 게으른 인생입니다.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 안에
파묻어버리는 것 또한 악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나태의 죄는 무엇보다 게으름으로 나타납니다. 충분한 휴식과 여가생활까지 나태의 죄로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쉬고 여가 속에 하나님과의 사귀이 전혀 없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나태의 죄로 그를 위험이 있습니다.

나태를 일곱 가지 치명적인 죄로 포함할 때는 게으름의 의미를 넘어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나태의 죄는 게으름뿐만 아니라 분주함으로도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나는 쉬 틈 없이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태하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이 온통 일에 빠져버린 모습으로도 나태의 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책 가운데 ‘분주함은 헌신이 아닌 배신의 표시’라는 중요한 문구가 나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분주합니다. 첫째, 자만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처럼, 자신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자만하기 때문에 분주합니다. 둘째, 나태하기 때문입니다. 나태의 정반대 단어가 ‘근면과 성실’입니다. 영어 단어 ‘diligence’의 뿌리가 되는 라틴어의 뜻은 ‘사랑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근면과 성실이라는 단어의 뿌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근면과 성실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태를 의미하는 또 다른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acedia’인데, 이 단어의 헬라어 의미를 보면 ‘관심(사랑)이 결핍되어 있다’입니다. 이 단어들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 나태의 뿌리에는 참된 사랑과 관심에 대한 거부와 결핍이 있습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하고, 마땅히 관심 기울여야 하는 일들에 대한 거부와 결핍이 나태입니다. 그래서 나태는 게으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분주함으로 나타납니다. 단지 우리의 육체가 열심히 일하고 움직인다고 나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도 나태가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름과 분주함 모두가 나태한 죄에 빠진 영혼의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비유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로 나태한 영혼에 대한 책망과 경고를 하셨습니다. 다섯 달란트

와 두 달란트를 받은 종은 각기 충성되게 일해서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두려워서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놓았다가 다시 주인에게 한 달란트를 돌려주었습니다. 주인은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며 열 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흔히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자신의 능력을 최선을 다해 활용해서 많은 것을 남기고 배가시키는 생산적인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비유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전체 말씀의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것인데 그 종말을 어떻게 개여 준비할 것인가’이기 때문입니다.

달란트 비유 앞에 나오는 비유에서는 사랑을 맞이하기 위해 신부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기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임하실 때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 은사와 소명을 의미합니다. 달란트는 원래 화폐 단위입니다. 당시 달란트는 매우 큰 단위였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을 1데나리온으로 계산했는데,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약 15~20년 가까이 매일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2달란트는 1만2천 데나리온입니다. 약 40년 동안의 수입입니다. 5달란트는 3만 데나리온, 100여 년 가량의 수입입니다. 한 달란트만 해도 한 사람이 얻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한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가치를 말합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비유를 ‘내가 노력해서 이익을 얻어야 한다’는 메시지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올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를 의미합니다. 건강, 지식, 재능, 돈, 힘 등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부여된 것들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다.” 죄만 나의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맡기신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른 분량으로 구별되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구별해서 맡기셨을까요?

일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입니다.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다양하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양성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큰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큰일인지 작은 일인지, 큰 능력인지 작은 능력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종을 칭찬한 것은 그들이 이유를 남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유를 남겨야 칭찬을 받았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좌절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은혜로 주어진 일에 믿음으로 참여해서 동일한 은혜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다섯 달란트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로 두 달란트를 얻었다는 것은 세상적인 이유의 측면이 아니라 은혜의 열매입니다. 내가 은혜로 받은 사랑만큼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그것은 동일한 달란트를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사랑, 은혜, 복음을 그대로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전해준다면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를 받은 자가 두 달란트를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받지 않은 것, 나에게 없는 것을 남기라고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남겨야 할 달란트는 내가 들고 변화된 복음을 또 다른 영혼이 듣고 변화될 수 있도록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값진 은혜를 누군가가 받을 수 있도록, 지식의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나눠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동일한 달란트를 남기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하기에 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무관심하다면 나태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은 종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인의 은혜로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긴 것은 이유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랑 때문이고 신뢰해서입니다. 왜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악하다고 평가했습니까? 받은 돈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원금은 보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굳이 악하다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를 게으르다고 평가했습니까?

“그때 1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굳은 분이랴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도 곡식을 모으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운 나머지 나가서 주인님의 돈을 땅에 감춰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주인님의 것이 있습니다.’”(24-25절).

첫째, 그 종은 자신의 나태함을 주인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주인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있습니다. 주인이 그를 악하고 게으르다고 평가한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맡길 때 “만일 잘못되면 벌할 것이다”, “변상시킬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종들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맡긴 것입니다. 사랑과 신뢰로 맡긴 것입니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맡은 종이 이유를 남겼기 때문에 칭찬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의도를 잘 깨달았기 때문에 칭찬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의 나태함의 책임을 주인에게 돌렸습니다. 주인을 오해한 것입니다. 주인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범한 죄 외에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니까? 내가 지금 생명으로 호흡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해서서 기대를 가지고 맡겨 주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가 우리 인생의 밑바닥에 깔려있지 않았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불신과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다. 나에게서 더 많은 것을 주시지 않았고, 한 달란트밖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남기지 못했다”는 비난을 하나님께 돌린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뢰해서서 달란트를 맡기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시작입니다.

둘째, 악하고 게으른 종의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종은 “두려워 주인의 돈을 땅에 감추었다”고 말했습니다. <13면에 계속>

기획_크리스천과 품성 시리즈

1. 신앙은 품성으로 드러난다 2. 온라인에서도 지켜야 할 품성 3. 당신의 말에 숨어있는 품성

말하는 순간, 당신의 품성이 드러난다!

인정, 격려, 감사, 사랑, 긍정, 희망의 말이 크리스천의 언어
말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 ... 그리스도의 품성 담은 말 한마디!

‘막말’은 되는 대로 함부로 하거나 속되게 말함을, ‘망언’은 이치에 맞지 않고 허황된 말을 뜻한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막말과 망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대중의 모범이 되어야 할 사회지도층과 선망의 대상인 연예인들이 도가 지나친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들의 말 속에 숨어 있는 저급한 품성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어떨까? 막말과 망언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성도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할 목사들의 막말과 망언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교회를 걱정할 지경에 이르렀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아름다운 입술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지는 못하고 비방, 경멸, 무시, 분노,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크리스천의 말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깃들어 있어야 한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 한 가지는 말하는 순간, 당신의 품성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사람이 지닌 고유한 향기는 사람의 말에서 뿜어져 나온다.”

책 <말의 품격>의 저자 이기주 작가는 말에 고유한 향기가 있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말의 향기는 개인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인향(人香)에서 비롯되는데, 친절하고 배려심 있는 품성을 가진 사람은 그 품성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인향의 말을 한다. 반면 무례하고 난폭한 품성을 가진 사람의 말에서는 폭력적인 인향이 난다. 이는 그럴듯한 말, 미사여구로는 절대 가릴 수 없는 개인의 품성(本성)이 말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의미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는 ‘막말과 망언’ 논란

K자매(39세, 타교회)는 남자친구의 과격한 언어습관 때문에 이별했다.

“하루는 남자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끼어들니가 남자친구가 돌변을 하더라고요. 화가 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쌍욕과 막말을 하면서 위협운전까지 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잖아요. 평소에는 그런 쌍스러운 말을 전혀 하지 않아서 정말 많이 놀랐어요. 그의 이중적인 모습이 너무 무섭고 싫어서 더 이상 사귄 수가 없겠더라고요.”

L자매(43세)는 말에 대한 결벽증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보통 결벽증하면 청결상태를 따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말에 대한 결벽증이 있어요. 사이가 좋았던 친구나 후배라도 어느 날 욕 한마디라도 하면 정나미가 툭 떨어져요. 택시나 버스를 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사 아저씨가 욕설을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내려버려요. 욕하는 사람은 사람 취급하기 싫을 정도로 불쾌해요.”

막말과 망언 논란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한다. 미국의 방송인 댄 아이무스는 막말로 인해 30년 방송생활을 중단해야만 했다. 그는 대학농구시합에서 우승한 락거스대학교 여자농구팀 선수들을 향해 “우둔한 창녀 같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락거스대 여자농구팀 선수 8명이 흑인이었기



때문에 이 말은 인종차별 발언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는 전에도 소속 방송사 특파원에게 “청소부 같다”, 당시 민주당 대통령 대선 주자였던 버락 오바마를 “그 유색인 친구”라고 부르면서 깔보고 비방한 적이 있었다. 그의 말 속에는 저속한 품성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막말과 망언 수위는 누가 뭐라 해도 정치인들을 따라갈 수 없다. 지난달에는 한 국회의원이 권력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협박하는 것 같은 말을 쏟아냈고, 한 기초단체장은 다문화가족 행사에서 ‘잡종강세, 튀기, 잘못 지도하면 파리 폭동’ 등의 막말을 내뿜었다. 정치인들이 쏟아내는 비속어와 과격한 발언으로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정치인들의 막말과 망언 논란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 더 안타깝다. 비단 비속어 사용만이 문제가 아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편협하고, 수준 낮은 가치관, 겁박하고 비하하는 품성이 그들의 막말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진정한 영성은 언어의 수준과 비례한다

목사들의 막말과 망언도 둘째가라면 서럽다. 얼마 전에는 한 목사가 본분을 망각하고 극단적인 정치적 성향을 고스란히 드러내면

서 막말을 쏟아내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를 넘어 걱정거리가 되는데 크게 일조했다. 그 목사는 헌법위반으로 수사까지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목사들의 막말과 망언 논란이 어디 이뿐인가. 인천의 한 목사는 세월호 참사 때 희생자들과 유가족, 국민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세월호 침몰로 경제도 멈춰 섰다. 세월호 침몰로 대한민국호까지 침몰될 수 있다. 이제 그만 노란 리본을 내리자”고 발언해서 공분을 샀다.

진재혁 목사(前 지구촌교회 담임)는 그의 책 <언어의 영성>에서 “진정한 영성은 언어의 수준과 비례한다. 기도의 골방에서의 영성이 이제는 우리의 삶과 관계 가운데 언어의 영성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말에 비춰 보면 막말과 망언 논란을 빚는 사회지도층과 일부 연예인과 목사들의 가치관과 영성은 수준 이하임이 틀림없다. 성경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잠 23:7)이라고 했다. 말과 생각이 품성을 형성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격려와 칭찬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일생을 바꾼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말해야 좋은 품성을 드러낼 수 있을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와 영국 시인 월터 스콧의 사례가 그 해답이 될 수 있다.

미국이 낳은 위대한 부흥사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어렸을 때 동네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골칫덩어리였다.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머리를 흔들며 “저 아이가 커서 도대체 뭐가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할머니만은 달랐다. 할머니는 개구쟁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늘 격려의 말을 했다.

“너는 말을 잘하고 사람을 끄는 재주가 있어. 너의 개성만 잘 살리면 장차 크게 될 거야.” 이 말 한마디가 빌리 그레이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소설 <아이반호>로 유명한 영국의 계관시인 월터 스콧은 어린 시절 ‘멍청한 아이’로 놀림을 받았다. 그는 열등생들이 쓰는 종이 모자를 쓰고 교실 한구석에서 침울하게 지냈다.

스콧은 문학에 관심이 있어 좋은 시를 보면 열심히 외었다. 그가 13살쯤 되었을 때 유명한 문필가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그의 운명이 변했다. 당시 유명한 시인이었던 로버트 번즈가 우연히 스콧의 시 암송을 듣고는 “꼬마야, 너는 언젠가 영국의 위대한 인물이 될 거다”라고 칭찬했다. 번즈의 칭찬을 들은 열등생 스콧은 그때부터 용기와 꿈을 가지고 인생을 개척했다. 결국 그는 영국이 자랑하는 위대한 시인이자 소설가, 법관으로 명성을 날렸다. 격려와 칭찬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일생을 바꿔버린 것이다.

말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도 갚을 수 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 독한 말, 날카로운 말, 경박한 말 대신 인정과 격려의 말, 감사와 사랑의 말, 긍정과 희망의 말을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언어이자 품성이다. 잘 차려입고 건실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거칠고, 경박한 말을 하는 순간 좋은 이미지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만다. 남루한 모습일지라도 사랑이 담긴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만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질 것이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은 크리스천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잠 16:24).

기고

올곧은 품성은 올바른 언어에서 나온다!

크리스천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성경적 제언



곽상학 목사
(온누리교회 협동목사, 前 고교 국어교사, 다음세움선교회 대표)

지도자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덕목 2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능력’과 ‘도덕성’일 것이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경륜(經綸)’과 ‘인품(人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이나 나라를 운영하는 일 또는 그 계획과 포

부를 뜻하는 경륜(經綸)은 많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경륜이라는 말은 사실 엉뚱한 데서 유래했다. ‘경(經)’은 실(絲)이 물줄기처럼 뻗어가는 ‘날실’을 뜻하는 말로 ‘날경’이라 한다. 날실이란 처음에는 ‘곧게 뻗은 세로줄’을 뜻하다가 나중에는 ‘곧게 이끌다, 다스리다’란 뜻으로 바뀌었다. ‘륜(綸)’은 낚시줄을 가리키는 본뜻에서 낚시줄을 조정하듯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의 말씀이라는 뜻을 품어 ‘다스릴 륜’이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꼬일 대로 꼬인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엉켜버린 사람이었다. 사울에 이어 2대 왕에 등극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통치함에 있어서 뒤엎어버린 실패처럼 꼬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펴는 일에 집중했다. 성경은 그가 모든 백성들을 올바르게 의롭게 다스렸다고 한다(삼하 8:15).

다윗의 올바른 다스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흔히 ‘올바르다’가 ‘옳고 바르다’의 뜻을 나타내므로 ‘올다+바르다’의 합성어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우리말 어원사전에 따르면 올바르다는 ‘올(絲條)+바르다(正)’에서 온 말이다. 이때 ‘올’은 실의 낱말의 가닥을 뜻하는 명사이고, ‘바르다’는 비뚤어지거나 굽은 데가 없다는 뜻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즉, 다윗의 통치는 온 이스라엘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실낱같은 현안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르게 펴가는 통치를 했다는 것이다.

비폭력대화 프로세스 ‘관찰-느낌-필요-부탁’

강원도 깊은 산골에 사는 한 초등학교생의 짧은 동시가 매우 인상적이다. 제목은 ‘마을 회관 문’이다.

아침에 밖에 나가보니

마을 회관 문이 꺼져있다

우리들은 바람이 쐬다 생각하고

어른들은 우리가 쐬다 생각한다

이 동시를 읽으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때가 떠오른다. 어느 날 학생식당에서 급식 지도를 하고 있었는데, 창가에 있던 화병이 떨어져 깨졌다. 나는 대뜸 “누구야? 누가 쐬어?”



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학생들이 멈칫하고 내 눈치를 살폈다.

“누구야? 범인 빨리 안 나올거야?”

내 목소리와 표정에는 화가 잔뜩 묻어있었고, 학생들의 마음은 이내 두려움과 불안, 짜증과 억울함까지 밀려 올라왔을 것이다. 이처럼 선부터 판단과 오해, 성급한 결정과 과도한 감정노출로 서로의 마음에 생채기만 남기는 폭력적인 대화는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소외와 분노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어떻게 하면 단 한 명이라도 진실한 관계를 맺고, 나와 세상에 대해 화해를 청할 수 있을까? 그것은 자신의 언어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사람의 사유(思惟)가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이 바로 언어이기 때문이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파급력 있는 도구는 언어이다. 언어(言語)는 글과 말의 합성어이다. 기록이 되어 역사로 남는 글과, 주로 대화로 표현되는 말의 중요성은 인간관계의 시작과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내재된 죄성으로 인해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과 세상에 매우 폭력적으로 변질되었다.

미국의 마셜 로젠버그 박사는 ‘관찰-느낌-필요-부탁’이라는 비폭력대화 프로세스를 만들었다. 비폭력 대화는 ‘너’를 주어로 하는 말하기에서 ‘나’를 주어로 하는 말하기로 바꾸는 것이다.

“너 왜 맨날 늦어? 좀 빨리빨리 다녀라.”

약속시간에 늦은 친구에게 말하는 전형적인 ‘너’를 주어로 말하기였다면, “나 걱정했어. 늦으면 미리 좀 알려줄래?”라고 ‘나’ 주어로 말하도록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를 주어로 내가 본 것과 들은 것(관찰), 내 느낌, 내가 원하는 것(필요, 부탁)을 말하는 대화법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비폭력대화라고 하는 것이다.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비폭력 대화를 연습해 보자.

첫 번째 사례, 새로 산 옷을 입고 나가려는데

옷장에 옷이 없어 동생에게 보내는 문자이다.

관찰: 옷장에 넣어둔 내 원피스가 보이지 않아.

느낌: (지금 입고 나가야 하는데 없어서) 당황스러워.

필요: 혹시 내가 입고 나갔는지 알고 싶어.

부탁: (입고 갔다고 하면) 입고 싶으면 미리 말해줄래?

두 번째 사례, 분명 방청소를 했는데 엄마가 “이게 한 거냐?”라고 할 때, 보통 우리 아이들은 폭발한다.

관찰: 엄마한테 “이게 청소한 거냐?”라는 말을 들으니

느낌: 솔직히 맥이 풀려요.

필요: 어떻게 청소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

부탁: 다시 해야 할 부분을 알려주시겠어요?

처음에는 ‘나’를 주어로 말하는 것이 어색하고, 힘들고, 듣는 사람 역시 심리적 저항을 일으킬 수 있다. 오른손을 쓰던 사람을 갑자기 왼손으로 쓰게 하려는 것처럼 그렇게 서툴고 어색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말하기는 말을 배우는 어린이처럼 연습을 통해 배우고 바뀌어야 한다. 우리에게서 나 자신과 세상과 하나님과 화해를 선포하고, 평화를 이뤄야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혀가 모든 관계의 실마리를 쥐고 있다

성경은 지혜서인 잠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언어생활에 대해 많은 지침을 주고 있다.

첫째, 들을 준비를 하고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 전에 대답하지 않는다.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사람은 미련함 그 자체고 망신만 당한다” (잠 18:13).

둘째, 말하기를 천천히 하고 성급하게 말하지 않는다.

“적절한 대답은 사람을 기쁘게 하니 때맞춰

하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잠 15:23).

셋째,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배려하며 말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오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며 노하기도 천천히 하십시오” (약 1:19).

넷째, 진실을 말하되 언제나 사랑으로 말한다. 사실을 부풀리거나 축소하여 말하지 않는다.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에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엡 4:15).

다섯째, 말다툼을 벌이지 않는다. 다투지 않고도 얼마든지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

“다툼을 시작하는 것은 맘에 구멍내는 것과 같으니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말다툼을 그치라” (잠 17:14).

여섯째, 분노를 다스리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한다.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며” (엡 4:26).

일곱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가 잘못을 고백하면 용납하고 용서한다.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엡 4:32).

여덟째, 선부터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

“말이 많으면 죄를 짓기 쉽지만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롭다” (잠 10:19).

아홉째, 상대를 책망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회복시켜주고 격려한다.

“그러므로 화해를 이루고 서로 세워주는 일에 힘쓰시라” (롬 14:19).

열 번째, 누가 말로 공격하거나 비판하거나 책망한다고 해서 똑같이 대꾸하지 않는다.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해 하십시오” (롬 12:17).

올바른 표현은 올곧은 관계의 시작이다. 가정, 회사, 국가를 경영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올바름’이다. 올바로 표현하고, 올바로 수용할 때 올바른 관계가 시작된다. 그 올바른 관계는 언제나 우리의 혀가 출발점이자 종착점이 된다.

우리의 혀가 모든 관계의 실마리를 쥐고 있다. ‘헝클어진 실타래에서 실마리를 끌어내 가지런히 하다’는 뜻에서 시작돼 ‘조직을 다스리다’는 뜻으로 발전한 경륜이란 단어처럼, 혀로 시작되는 일상의 경영은 올바른 표현으로 시작해서 올곧게 인간관계망을 지어가는 것이다.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을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엡 3:2).

에베소 교인들이 분명히 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도 바울의 올바른 표현과 올곧은 삶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올바른 표현이 올곧은 품성으로 이어지듯 말이다.

비전헌금, 이렇게 쓰이고 있다

평창 ‘산마루예수공동체’ 후원

온누리교회는 매월 둘째 주일 비전헌금을 봉헌하고 있다. 비전헌금은 도움과 동역이 필요한 교회와 단체에 전달해서 그들이 오랫동안 꿈꿔오던 비전을 이루도록 돕고 있다. 산마루교회(담임 이주연 목사)가 산마루예수공동체를 만드는 일에도 온누리교회 비전헌금이 전달됐다. 산마루예수공동체는 노숙에서 벗어난 이들과 순수한 복음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필요한 모든 성도들을 위한 열린 영성공동체다. 강원도 평창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이주연牧사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탄탄한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평창에서 15분쯤 떨어진 평창강 상류 금당계곡을 따라가다 보면 ‘산마루예수공동체’ 안내 표지판이 나온다. 그 표지판을 따라 산길을 오르다 보면 문득 ‘이런 곳에 사람이 살까’ 싶은 생각이 들 즈음 산마루예수공동체가 보인다. 그 정도로 깊은 산속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산마루예수공동체가 자리 잡은 해발 700m 골짜기를 ‘큰 항아리골’ 혹은 ‘항골’이라고 부른다. 깊은 산세가 골짜기를 항아리 모양으로 감싸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는 “100년을 내다보고 십자가를 세우면 1,000년은 지켜갈 믿음의 땅”이라고 소개했다. 예배처소와 숙소가 있는 건물과 숙소 위쪽으로 약 2km정도 떨어진 곳에 약 165,289㎡의 부지가 있는데 그곳을 통틀어서 산마루예수공동체라고 한다.

이주연 목사와 함께 산마루예수공동체를 둘러봤다. 이 목사는 골짜기 구석구석 쓰임새가 없는 곳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 고랭지작물을 재배할 생산지, 예수의 팔복(八福)을 묵상할 수 있는 동산, 기도하는 바위산, 아름다운 숲속의 개인 기도처, 공동체 식구들이 살게 될 터 등 그 쓰임새가 조화롭았다. 이미 밭에서는 감자와 옥수수가 쭉쭉 자라고 있었다. 산마루예수공동체에서는 직접 재배한 작물을 통해 자활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 정상 어귀에 우뚝 솟아있는 7m 높이의 나무 십자가가 산마루예수공동체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산마루예수공동체는 노숙인뿐만 아니라 회복이 필요한 모든 이들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하는 열린신앙공동체이다.

21세기, 영성, 탈노숙인, 공동체

산마루예수공동체를 소개하는 주요 키워드는 ‘21세기’, ‘영성’, ‘탈노숙인’, ‘공동체’다. 영 어울리지 않는 조합 같은데 이주연 목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단어처럼 잘 맞는 조합도 없다. 산마루교회는 노숙인 사역을 10년 넘게 하고 있다. 노숙인들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해맞이대학, 사랑의 농장, 목욕빨래방, 해맞이 공동체(포천, 7년 운영) 등을 운영해 왔다. 매주 노숙인 100여 명이 산마루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세간에서는 산마루교회가 노숙인을 위한 탁월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이주연 목사의 생각은 달랐다.

“노숙인들만 있으면 자활과 자립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농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농작물을 키웠는지 몰라요. 평일에는 하루 종일 노숙인 형제들과 함께 농장에서 일을 했어요. 포천의 해맞이 공동체에서 자립자활을 위해 무상 임대를 한 약 3,967㎡(1,200평) 농지에서 많은 일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로는 그분들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한 노숙인 형제는 하루 뒤면 16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방앗간에서 70만 원을 받아서 도망가기도 했어요. 그 일을 겪으면서 생각한 것이 노숙인들과 성숙한 성도들이 함께 하는 신앙공동체예요. 탈노숙인이 30%, 청년 30%, 성도 40%가 함께 하는 신앙공동체입니다. 탈노숙인들만 있으면 새롭게 되려고 노력해도 거듭난 삶의 문화가 없어서 옛 삶에 머물고 맙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성도들이 주축을 이루

어야만 합니다.”

“회개한 자가 거하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라”

산마루예수공동체가 만들어지기까지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일단 터를 구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다.

“강원도 영월에 적당한 땅이 있었고, 지자체에서도 후원을 해주겠다고 제안했어요. 강으로 둘러싸인 섬 같은 지역이어서 위치가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지세가 영적인 공동체를 세우기보다는 놀고 쉬는 분위기라 그만 두었습니다.”

그 다음은 강원도 대관령에 적당한 터가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갈 때마다 사고가 났다. 마침내는 2018년 2월 22일 같이 간 장로가 발목이 부러졌다. 요천 데 덮친 격으로 119 구조대가 길을 해매느라 한참을 흑한에 떨어야만 했다.

“그때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산마루예수공동체를 못 하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증거를 보여주셔야지요.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못 하겠습니다’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3월 18일 주일에 권사님 같은 분이 제 사무실에 찾아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오셨느냐 여쭙었더니 ‘기도 중에 주님께서 목사님께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하며 누런 봉투에 큰 액수의 헌금을 십일조라며 내놓고 가셨어요. 두렵고 떨렸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이것으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산마루예수공동체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부지를 다시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산마루교회에 새신자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평소 공동체에 대한 비전이 있어 바둑판이 있었다면서 저를 그곳으로 안내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여기예요. 2018년 5월 21일 이 땅을 밟는 순간 ‘회개한 자가 거하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2018년 6월 한 달 동안 새벽기도회 ‘63020 특별새벽기도회’를 열었다. 이주연 목사는 “6월 30일까지 20억 비용이 마련되면 시행하고 아니 되면 주님의 뜻이 아니니 그만 둔다”고 기도했다. 그런데 18억 5천만 원이 마련되었고, 토지 값이 깎여 18억 5천만 원이 됐다. 기존의 성도로서 다 감당할 수 없었는데 새로운 성도들을 보내주셨다. 농지와 터전을 마련했는데 이번에는 건축이 문제였다. 이때 인접한 곳에 수양관이 있었는데 뜻을 함께하겠다고,

수양관을 실비용으로 양도하겠다고 했다.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는데 온누리교회에서 비전헌금 1억 7천여원을 지원한 것이다.

산마루예수공동체는 수도원적 공동체

이주연 목사는 산마루예수공동체를 21세기 기독교 수도원적 공동체라고 소개했다. 절제와 노동과 기도가 있으나 금욕적이기보다 창조적인 영성, 기독교의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도심 속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일상을 떠나 일정 기간 함께할 수 있는 수도원적인 공동체 생활이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산마루예수공동체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공동체이고, 어려운 이웃이 회복되는 자립자활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속에서 기도생활과 노동을 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공동체성이 회복되면 이 시대의 큰 문제인 이기주의와 물질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시작한 산마루예수공동체에는 이주연 목사, 탈노숙인 형제, 탈북자들을 섬기던 선교사 등 5~6명이 생활하면서 터를 다지고 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20여 명의 성도들이 노동하고 기도하며 교제한다. 8월부터는 매주 토요일에 8복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십자가 묵상을 하는 ‘영성클래스’가 시작된다. 주일 오전 5시에 주일예배도 드려진다. 금요일 저녁 퇴근하고 산마루예수공동체에 왔다가 월요일 새벽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면 늦지 않게 출근할 수 있다. 산마루예수공동체가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가정 회복을 목표로 한 ‘장 담그기 클래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주말 농장처럼 온가족이 산마루예수공동체를 방문해서 직접 콩을 기르고 수확해서 장을 담그는 프로그램이다. 장 담그기 클래스에 두란노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등 온누리교회의 다양한 가정사역 프로그램도 적용할 예정이다.

산마루예수공동체의 비전은 계층을 초월한, 8복의 영성(십자가의 영성)을 통해 이 땅에 생명과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초대교회적인 신앙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이곳에서 함께 생활하고 싶은 성도는 토지를 제공받아 개인생활관을 지어 생활할 수도 있고, 평일이나 주말에만 와서 지낼 수도 있다. 산마루예수공동체에 머무는 동안에는 기도회, 식사 준비, 농사일, 꽃 가꾸기 등 공동체를 위한 섬김에 참여해야 한다. 문의: 산마루교회 02-3273-0891



이슬람 공동체인 바뚜바닥 마을에서 유치원을 통한 사역이 기대된다.

NGO 더멋진세상, 람퐁족 마을에 유치원 준공

7월 22일 유치원 준공식 및 ‘CHE’ 훈련 실시

NGO 더멋진세상이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람퐁족이 거주하고 있는 바뚜바닥 마을에 유치원을 준공했다.

지난 22일(월) 바뚜바닥 마을에서 유치원 준공식과 CHE(Community Health Evangelism)훈련이 열렸다. NGO 더멋진세상이 준공한 유치원에서는 차세대 80여 명이 꿈을 키워

나갈 예정이다. 운영은 주민들이 도맡아 한다.

람퐁족은 온누리교회가 입양한 미전도종족이다. 20여 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쉽사리 복음의 문을 열지 못했다. NGO 더멋진세상은 선교사들과 함께 바뚜바닥 마을에 가족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시설 및 우물 설치, 건강증진센터를 건축하며

사역을 확장해 나갔다. 여기에 이웃리치팀의 사역 등이 이뤄지며 주민들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앞으로 NGO 더멋진세상은 바뚜바닥 마을에서 주민들과 함께 더멋진마을 조성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S브릿지 성도 55명 비전통독 세미나 수료

3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 90일 과정

S브릿지공동체 성도 55명이 지난 7월 12일 ‘비전통독 세미나’를 수료했다. 비전통독 세미나는 지난 3월 8일부터 매주 금요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믿음홀에서 찬양 및 기도, 개인 성경읽기 발표, 감미향 목사의 강의, 조별나눔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비전통독 세미나는 <비전 통독>(두란노)에 나와 있는 성경읽기 가이드북, 성경읽기표, 오디오 등을 활

용해서 90일 동안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이다. 개인이 매일 정해진 분량만큼 성경을 읽고, 매주 금요일 열리는 비전통독 세미나에서 개인 성경읽기 발표를 하는 방식이다.

전병천 전도사(S브릿지공동체)는 “이번 비전통독 세미나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S브릿지공동체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 권찬송 기자

회복예배 8월 특강 ‘마음의 소통’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20분 서빙고 본당

회복예배 8월 특강 ‘마음의 소통’이 8월 2일부터 30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2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5주 동안 진행된다.

회복예배 8월 특강 주제는 2일 ‘생명을 살리는 소통’, 9일 ‘마음의 소통’, 16일 ‘마음의 잔치’, 23일 ‘

말씀과 찬양집회’, 30일 ‘마음아, 넌 누구니?’이다. 박성덕 소장, 박성미 대표, 이강학 교수, 김종찬 목사가 강의한다. 치유와 회복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문의: 02-3215-3532

두란노 어머니학교 109기 수강생 모집

8월 28일~ 9월 25일까지 서빙고 시온홀

두란노 어머니학교에서 109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8월 28일부터 9월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5주 동안 진행된다.

강의 주제는 ‘성경적 여성상의 회

복’, ‘아내의 사명’, ‘자녀양육’, ‘기도하는 어머니’, ‘십자가와 사명’이다. 기혼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9월 3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회비는 12만 원.

문의: 02-2182-9114

일본어예배 파푸스 여름캠프 ‘일어나(おきあがれ)’

일본인 주재원 초등학생 자녀 및 봉사자 60여 명 참석

일본어예배가 지난 7월 13일과 14일 ‘파푸스 여름캠프’를 불광동 팀수양관에서 개최했다. ‘일어나(おきあがれ)’를 주제로 열린 이번 파푸스 여름캠프에는 이촌동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 주재원들의 초등학생 자녀들과 봉사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파푸스 여름캠프에서는 할렐

루야 타임(찬양), 레크리에이션, 워터 어드벤처(물놀이)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봉사자 노리코 성도(파푸스 교사)는 “진화론이 전부라고 배우는 일본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귀한 시간이었다”며 “이 아이들이 캠프 후에도 교회에 연결돼 말씀을

듣고 주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8월 2~4일에는 일본어예배 중고등부·청년부 연합캠프가 ‘Ja One’을 주제로 경기도 가평 꿈에그린펜션에서 열린다. 일본인 청소년 및 청년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7월 세례자

■ 서빙고	유은주 690120
입교	입교
박종호 600919	박민정 010501
박현주 720412	유아
서지우 000505	권보경 170814
이종운 730325	권양수 박영은
이호준 550320	김주수 170816
이효영 580715	김규하 황다영
전광구 720918	김주아 180829
조유빈 990403	김여환 김에림
한덕신 731208	김하경 180824
입교	김지한 배성은
배준우 000313	박 울 180216
유아	박원욱 이서윤
권하임 181129	이로운 170705
권오현 김나정	이형만 이신희
김나은 170730	이유민 181019
김현철 김정민	이정환 서주연
김유준 180502	조수아 181203
김동하 서은경	조윤석 김상애
오하진 171213	
오현병 서해정	
윤지호 180826	〈대청〉
윤석주 배지혜	■ W
유지수 170926	이준호 851103
유원규 이미호	
■ 양재	
명지혜 821012	

새가족 등록을 축하합니다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1136558	주오성	W	1136585	장암미	SNS	1136611	김영화	여호수아
1136559	곽형준	강동 말씀	1136586	김다현	SNS	1136612	정가영	여호수아
1136560	양예빈	W	1136587	이지혜	SNS	1136613	정인호	여호수아
1136564	김윤희	강남B	1136588	홍수경	SNS	1136614	신동우	여호수아
1136565	박찬주	W	1136589	박성철	SNS	1136615	홍석남	여호수아
1136566	이재현	W	1136590	태일환	SNS	1136616	강민수	여호수아
1136568	김성연	수원 복누리	1136591	김민수	SNS	1136617	박지민	평택
1136569	박래혁	S브릿지	1136592	한지윤	SNS	1136618	오다열	허브
1136570	이하람	대전 사누리	1136593	정세미	SNS	1136623	이혜승	서초C
1136571	홍성준	강남B	1136594	김민석	산용산	1136624	맹지선	강남B
1136572	유정원	강동파푸스	1136595	장선자	강서	1136626	조용희	공동체 없음
1136573	박소영	양재	1136597	김정진	성동광진	1136627	심지영	Point5
1136574	김승미	대전 남누리	1136598	이주원	성동광진	1136628	박연하	인천 소망
1136575	김창현	Point5	1136599	임상훈	인천 소망	1136629	정재훈	서대문
1136576	이교은	SNS	1136600	구은례	부천 화명	1136630	홍은정	서대문
1136577	여은솔	SNS	1136601	한영동	Harmony	1136631	강은숙	인천 믿음
1136578	정소연	SNS	1136603	정일현	성동광진	1136632	김혜림	서초C
1136579	최지수	SNS	1136605	인천 믿음	AnnaTong	1136633	김소현	OEM
1136580	김수연	SNS	1136606	양지수	Bridge33+	1136634	김소현	Point5
1136581	이학준	SNS	1136607	유승윤	용산	1136635	유다은	강남B
1136582	최재원	SNS	1136608	정선열	S브릿지			
1136583	황지은	SNS	1136609	이지윤	Gil			
1136584	홍성래	SNS	1136610	신동욱	Gil			

온누리M센터 물품 모집

안산M센터와 화성M센터에서 이주민을 섬기는데 필요한 물품을 모집하고 있다. 안산M센터에는 올 여름 아웃리치에서 사용할 치과용 유니트체어 3대, 제습기 2대, 마스크 팩 10세트, 한국 전통차 10세트, 화장품 10세트가, 화성M센터에는 중형 칼라 복합기 1대, 주방용 플라스틱 쟁반 5개, 플라스틱 접시 20개 등이 필요하다.

문의: 031-491-9650(안산M센터)
010-9958-6532(화성M센터)

두란노바이블칼리지 8월 일일 특강

기독교세계관의 기본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일일 특강 ‘기독교 세계관’ 세미나가 8월 9일 양재 온누리교회 도곡교육관 화평홀에서 열린다. 유경상 대표(CTC-기독교세계관교육센터)가 강의한다.

다음세대에게 기독교세계관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활용해서 가르치고 싶은 주일학교 교역자, 교사, 학부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회비는 6만 원.

문의: 02-2078-3456

코트디부아르에서 쓴

영과 혼과 육을 살리는 ‘의료선교팀 CMN 시온팀 아웃리치’ 환자 2,200여 명에게 치유를, 어린이 1,100여 명에게 사랑을

그 말 한마디, 그 손길 한 번이 영과 혼과 육을 살리는 치유이자 사랑이었다. 의료선교팀 CMN(Christian Medical Network) 시온팀(이하 시온팀) 18명이 지난 7월 6일부터 14일까지 서부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서 또 하나의 선교행전을 썼다. 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치유를, 하루 종일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린이들에게는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달콤한 사랑을 선물했다. 그 아름다운 현장에 동행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CMN 시온팀은 2,200여 명의 환자와 아이들 1,100여 명에게 치유와 사랑을 선물하고 돌아왔다.

시온팀 18명이 서부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의 행정 수도 아비장(Abidjan)으로 아웃리치를 가기로 결정한 것은 두란노해외선교회(TIM)에서 파송한 김성윤, 임정산 선교사 부부를 돕기 위해서였다. 김성윤, 임정산 선교사 부부는 아비장에서 7년째 사역하고 있다. 그 동안 몇 번 단기선교팀이 다녀갔지만 온누리교회 아웃리치팀이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CMN 본부와 2000선교본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그 땅에서 의료선교를 계획하고 있었다. 때마침 아프리카 선교에 비전을 품고 있던 시온팀이 적극적으로 참가의사를 밝혔다.

다른 아웃리치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의료사역은 정말 녹록지 않은 사역이다. 수많은 의료 장비와 의약품을 챙겨야하거나와 세관통과를 위해서 서류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 나라마다 의료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코트디부아르에서 사역중인 김성윤, 임정산 선교사 부부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처음으로 의료사역을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께서 돕는 손길을 붙여주셨다. 코트디부아르 아비장한인교회(백성철 담임목사)가 사역을 도와주기로 했다. 의료선교를 수십 년 동안 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줬다.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하는 사역은 거침이 없었다. 에텐교회(김성윤, 임정산 선교사), 신학교 IPTECI의 아나바교회(아비장한인교회), 벤자빌교회(박승혜 선교사), 아비장 장로회사회복지병원(아비장한인교회) 등에서 의료선교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의료선교 외에 특별한 요청이 한 가지 더 있었다. 교회마다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날마다 장소가 바뀌는 의료사역에만 집중해도 벅찬 일정이었지만 시온팀은 기꺼이 순종했다.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은 서부 아프리카의 주요도시로 꼽히는 곳이다. 그만큼 도시화가 잘 되어있다. 그런데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진다. 곳곳에 빈민촌이 있다. 김성윤, 임정산 선교사가 섬기고 있는 에텐교회도 빈민촌 안에 있다.

빈민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말할 수도 없

이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 당장 먹고 살기 바빠서 몸이 아파도 될 수 없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 본 적도 거의 없다. 의료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사정이 그래서인지 이곳 사람들은 거의 모두 크고 작은 병을 달고 산다.

예수님의 손길로 쓰다듬다

시온팀의 기도로 진료를 시작했다. 모든 의료진들은 환자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의 손길로 쓰다듬었다. 통역봉사자들에게 환자가 하는 말을 몇 번이나 되물으며 정성스럽고 세심하게 진료했다. 진료를 하면 할수록 안타까운 상황이 드러났다. 초기에 적절한 치료만 했어도 쉽게 나올 수 있는 병들이 방치되어 커진 경우가 너무 많았다. 그 대표적인 질병이 ‘부لول리 궤양(Buruli Ulcer)’이다. 전 세계 부لول리 궤양 환자의 41%가 코트디부아르 사람들이다. ‘마이크로박테리움 열서란스(Mycobacterium ulcerans)균’에 감염되어 발병하는데 대부분의 감염자가 15세 미만 어린이들이다. 처음에는 작은 혹이 생기는데 특이하게 통증이 없다. 병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다. 균이 피부와 살을 파먹어서 근육과 뼈까지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부لول리 궤양 발병 초기에 2달가량 항생제만 먹으면 치료가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감염자들이 병원 진료는커녕 항생제 사먹을 돈이 없다. 결국 신체 일부를 절단하거나 목숨을 잃게 된다. 시온팀은 사전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부لول리 궤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코트디부아르 부لول리 궤양 치료센터와 아비장한인교회에 전달했지만 아직도 수많은 이들이 치료를 받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조금만 일찍 치료했으면 쉽게 나올 수 있었던 질병들이 너무 많았다.

의료사역과 어린이사역을 한번에 ‘교회 와서 너무 행복해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은 아픈 사람 뿐만이 아니었다. 하루 종일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린이들에게도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이번 시온팀 아웃리치는 의료사역과 어린이사역을 동시에 진행했다.

어린이사역팀은 오전에는 교회 꾸미기, 오후에는 어린이사역을 실시했다. 어린이사역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새 생명이 춤을 췄다. 미미했던 벽면에서 나무가 자라고, 나비가 날아다녔다. 알록달록 게시판도 만들었다. 교회가 한층 밝은 분위기로 탈바꿈했다. 어린이사역은 인기 만점이었다. 찬양 ‘씩트네 쉼터요’를 율동과 함께 알려줬더니 어린이 200여 명이 서투르게 한국어를 따라했다. 난생 처음 불러보는 찬양과 율동이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여기저기서 박장대소가 터져 나왔다. 시온팀은 한참을 어린이들과 놀아준 다음 복음팔찌를 나눠주고, 축복기도를 해줬다. 천진난만 장난꾸러기들이 눈을 질끈 감고 진지하게 기도를 받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작은 천사들이 눈앞에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김성윤 선교사도 시온팀의 헌신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

“의료사역의 필요성은 알고 있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절실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CMN 시온팀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분명 기뻐 받으셨을 것입니다.”

아웃리치 둘째 날에는 아나바교회를 방문했다. 신학교 IPTECI 안에 있는 교회다. IPT

또 하나의 선교행전



이백권 집사(성형외과)가 구순구개열 수술을 하고 있다.



페이스페인팅을 받고 있는 코트디부아르 어린이.



환자를 진찰하고 있는 송호철 장로(내과).

ECI(아비장한인교회)는 코트디부아르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은 몇 안 되는 신학교이다. 무슬림들이 많은 지역이지만 아비장한인교회에서 꾸준히 사역한 덕분에 크리스천들에게 호의적이다.

이번 아웃리치의 의료선교는 아비장한인교회의 도움을 받아 수월했다. 아비장한인교회는 자체적으로 일 년에 의료사역을 열두 번이나 실시하고, 코트디부아르를 찾아온 의료사역팀을 세 번 돕는다. 올해는 시온팀까지 오는 바람에 의료사역팀을 네 번 지원하게 됐다. 아비장한인교회가 의료선교에 이처럼 열심인 이유가 있다. 백성철 담임목사가 그 이유를 설명했다.

“코트디부아르 지역사회로 들어가려면 가장 먼저 인심을 얻어야 합니다. 의료 환경이 좋지 않은 코트디부아르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데 의료사역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면 마음을 쉽게 열고 전도도 잘 되기 때문입니다.”

아웃리치 셋째 날에는 벤자빌교회를 찾았다. 두비 프랑소와 목사와 박승혜 선교사 부부가 사역하는 곳이다. 진료 시작도 안했는데 박승혜 선교사의 표정에 설렘이 가득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2004년 코트디부아르로 왔는데 의료사역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곳에도 병원 한 번 가기 힘든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벤자빌교회 성도 마담 쾰레(31세)의 사정도 그렇다. 마담 쾰레는 아들을 두 명 키우고 있는데 딸을 낳고 싶어서 임신을 기다렸다.

“딸을 낳고 싶었는데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걱정이 됐지만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그런데 오늘 산부인과 의사선생님이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안심이 되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까 아무 걱정 없이 기다릴 거예요.”

벤자빌교회에도 어린이들이 가득했다. 어린 이사역팀은 아이들의 얼굴에 하트, 동물, 화려한 문양 등을 그려주고, 풍선을 나눠줬다. 아이들이 얼마나 신이 났는지 선물 받은 풍선을 들고 이리저리 마음껏 뛰어 다녔다. 한국에서 가져간 팝콘 기계로 팝콘을 만들어줬더니 그야말로 천국잔치가 펼쳐졌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두비 프랑소와 목사가 함박웃음 지으며 말했다.

“결혼식 같은 큰 행사가 없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성도, 무슬림, 믿지 않는 사람 등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서 와서 정말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시온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방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아웃리치도 어느새 마지막을 향했다. 아비장장로회사회복지병원(아비장한인교회)과 상토스 초등학교가 마지막 사역지였다. 이번 아웃리치 사역지 중에서 가장 열악한 곳이다. 이 지역은 코트디부아르로 돈을 벌기 위해 온 아프리카 이주민들이 사는 곳이다. 양철지붕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었다. 우리나라 1970년대 판자촌을 다시 보는 것 같았다. 치료받으러 온 사람들의 사연도 기구했다. 올해 11살인 이스마엘은 7개월 동안 아

픈 눈을 치료하지 못하고 있었다.

“눈이 아프고 가려워서 왔어요. 엄마한테 눈이 아프다고 했는데 돈이 생겨야 병원에 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돈이 생기지 않아서 여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여기 와서 눈에 약을 넣으니까 아프지 않아요.”

이스마엘의 오른쪽 눈은 퐁퐁 부어있었다. 아이의 부은 눈을 보면서도 돈이 생겨야 병원에 갈 수 있다고 말한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곳에는 이스마엘의 어머니처럼 가슴 찢는 사연을 가진 이들이 족히 수십 아니 수백 명은 있다.

에스텔은 아이의 정확한 성별을 알고 싶어서 진료소를 찾아왔다. 진찰 결과 나중에 간단한 수술만 받으면 되는 여자아이였다. 의사의 이야기를 들은 에스텔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아냈다.

“제 아이가 장애가 있는 줄 알았어요. 병원

에도 못가고 애만 태웠는데 의사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요.”

상토스 초등학교는 창문이 없다. 벽을 뚫어야 빛이 들어오는 작은 교실 4개가 전부다. 나 무로 대충 만든 의자와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아이들은 꿈을 꾸고 있었다. 시온팀이 학교에 모인 어린이 250여 명에게 칫솔과 치약을 나눠줬다. 그런데 양치질을 할 줄 아는 어린이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양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치약을 먹지 말라고 설명을 해주어야 할 지경이었다. 칫솔을 생소하게 쳐다보는 아이들의 눈빛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저리게 했다.

시온팀은 이번 코트디부아르 아웃리치에서 환자 2,200여 명을 진료했고, 어린이 1,100여 명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했다. 돌아온 지금도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코트디부아르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있다.

코트디부아르(Cote d'Ivoire)는...

서부 아프리카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코트디부아르(Cote d'Ivoire)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다. 이름부터 낯선 느낌이 든다. 코트디부아르라는 이름에는 아프리카의 아픈 역사가 담겨있다.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코트디부아르는 프랑스어로 ‘상아 해안’이라는 뜻이다. 아프리카에서 포획한 코끼리의 상아를 유럽으로 보내던 항구에서 유래됐다. 코트디부아르는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의 생산지이기도 하다. 전 세계 카카오 생산량

의 약 40%가 코트디부아르에서 생산된다. 1960년 독립 이후 20년 동안 카카오와 커피 등을 수출하며 높은 경제성장을 이뤄 한때 ‘서부 아프리카의 파리’라고 불렸다. 하지만 1987년 국가가 파산하고, IMF의 구제 금융을 받으면서 경기가 침체되었다. 현재 1인당 GDP가 1,477\$ (2017년 기준)다. 수도는 야무수크로(법적), 아비장(행정) 두 곳이다. 종교는 이슬람 38.6%, 기독교 32.8%, 토착신앙 11.9%이다.

역사적 예수 연재 시리즈

예수의 세 가지 복음 사역 ‘설교, 치유, 가르침’



김영한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살롬나비 상임대표,
송실대 기독교학대학
원 설립원장)

산상설교는 일차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시기 때문에 사회개혁을 위한 원리를 제시해주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회개혁의 원리는 오히려 영적인 가난함과 자기 비움에서 기인한다. 진정한

사회개혁이란 사회의 정의로운 개혁을 제도적으로 수행하는 자들의 정신의 개혁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가난하고 청결한 자들의 공동체에서 비로소 진정한 사회개혁은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 가치의 전도(顛倒)

참 복의 여덟 가지 선언은 예수의 설교를 듣는 제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그대로 알려준다. 제자들은 가난하고, 굶주리고, 애통하며, 미움과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다(눅 6:20~23).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 세상적인 기준은 뒤집힌다. 하나님의 가치 기준은 세상의 가치 기준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이 산상설교의 역설이다. 세속적으로 가난하고, 세상적으로 박해와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이다. 이들에게 천국의 복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종교적 능력이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베푸시는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노력의 결과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자연적 능력(노력과 공로)을 초월하는 실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종교적 노력이나 관습의 결과로써 얻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마 19:30)고 했다. 하나님의 정의와 주권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경쟁이나 비교의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 보상원리는 각자가 자기의 수고와 공로에 따른 몫을 주장하는 세상의 보상 원리와 다른 가치의 전도(顛倒)가 야기하는 전적으로 다른 곳이다. 이 원리는 수고보다 훨씬 더 많은 보상을 해주시는 은혜의 원리이다. 이는 분명 세상의 원리와 다른 원리이다. 하나님의 가치 윤리는 인간의 공정함의 원리를 뛰어넘는 관대함과 은혜의 원리이다.

사랑의 윤리: 율법의 성취로서의 새 계명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의 내면화

예수 가르침의 핵심은 사랑의 윤리다. 사랑

의 윤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것은 이미 모세의 율법이 가르친 것이다. 예수는 전적으로 새로운 계명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와 선지자가 가르친 율법과 예언의 정신을 사랑의 새 계명으로 제시하신 것이다. 예수는 안식일 법이나 정결법 규례에서는 유대인들 종교지도자들과 정면으로 부딪쳤다. 그러나 예수는 율법의 내면을 통찰하였고, 율법의 정신을 바로 세우고자 하였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바로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였기 때문에 예수는 율법의 가르침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취하고자 한 것이다. 예수는 산상설교에서 다음같이 가르치신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마 5:17~18).

구약의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은 사랑의 계명이다. 율법의 계율에 외면적으로 강요되면 가기 싫은 오리(五里)는 가기가 어렵고, 곁웃을 달라고 하면 주기가 어렵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는 계명에 순종하여 미워하지 않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사랑의 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십리(十里)를 갈 수 있고, 곁웃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줄 수 있고, 원뿔을 때리면 오른뿔을 내어 줄 수 있다. 사랑의 능력을 가지면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후히 빌려줄 수 있다. 사랑의 능력을 가지면 원수에 대하여도 단지 미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수를 사랑할 수도 있다. 예수 사랑의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점화되면 그러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 속에 주어지면,

예수의 다음 말씀까지 이해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마 5:19).

중생한 신자의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가 들어와 사랑의 능력이 주어지게 될 때 율법의 규례를 넘어서서 성령의 인도를 좇아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을 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율법의 준엄한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이 신자의 마음속에 부여지게 되는 것이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바울은 성령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바 되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됴니”(롬 5:5).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새 사람의 성품을 가지게 된 것이다.

성령 안에서 옛 계명의 내면적 역동화

예수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새 계명을 주신 분이지만 그 자신이 율법의 폐지나 해체를 시도하기 위하여 오신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고, 세상 끝까지 율법의 일점

일획도 폐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마 5:17~18)고 말씀하셨다. 역사적 예수는 율법이 그의 오심으로 폐지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되었다고 가르치신다. 그는 율법이 그가 보내실 성령 안에서 전적인 자발적 드림을 통하여 역동적으로 성취됨에 관하여 가르치고 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진리에 관하여 가르치신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1b~32).

그는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 아래 거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진리가 그를 자유케 한다는 진리의 역설(逆說)을 가르치신다. 율법의 완성이란 율법의 요구에 얽매어 율법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가 인격으로 그 속에 계시게 될 때 그 사람은 자발적으로 진리를 순종하게 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요 8:36).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성령의 사역으로 그를 인격적으로 믿는 신자의 마음속에서 역동적으로 완성된다고 말할 수 있다.

예전처럼 오늘날에도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인간들에게 불편한 계명은 반드시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고 있다. 동성애 이슈가 그것 중 하나다. 동성애는 단지 윤리적 부덕으로 ‘하나의 가시’라고 보면서 교회가 이에 대해 너무 강압적으로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복음주의 지도자들도 있다. 그보다 조금 덜 부자연스런 해결은 동성애를 바울 사도가 가졌던 ‘육체의 가



시'(고후 12:7)와 비슷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필자가 기도하면서 성찰한 결론에 의하면 이는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예수의 가르침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필자가 성경을 이해하는 바에 의하면 동성애는 단지 가시 정도가 아니라 가증한 죄, 죄다. 필자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성경은 명백히 동성애를 “가증하다”(detestable, 레 18:22)고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성적 타락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 구약시대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말미암아 유향불 심판받은 것을 교훈해주고 있다(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자들이 성적 목적으로 나그네에 접근(창 19:5)하여 동성애 폭력을 저지르려고 했던 장면(창 19:5~7)이 우리에게 보고해주고 있다. 창세기 저자는 동성애를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들은 하나님의 유향 심판을 받기에 이른다. 사사기 19장에서도 베냐민 땅 기브아에서 여행객에 대하여 일어난 그 땅 주민 동성애자들의 성폭력 사건에 주인공 노인이 이렇게 말한다.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삿 19:23).

사사기 20장은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열한 지파가 일어나 동성애 및 집단난행(亂行) 살인사건 범행자들이 속한 베냐민 지파를 응징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레위기는 다음같이 동성애 금기를 명하고 같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레 18:22).

신약시대에 들어와 사도 바울은 로마시대에 유행한 동성애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금기하고 있다. 그는 “그 시대의 동성애자들이 부끄러운 욕심으로 행하며 역리로(para phusin) 여자나 남자를 성행위 대상으로 쓴다”(롬 1:26)고 하면서 이들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을 경고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의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고전 5:9)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전 6:9-10)고 쓰고 있다. 여기서 탐색하는 자(말라코이, malakoi)는 동성애 성관계에서 여자역할 하는 자, “남색하는 자”(아르세노코이타이, arsenokoitai)는 남자역할 하는 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신약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예수께서는 율법에 대한 그의 입장을 천명하신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마 5:19).

예수께서는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다 함을 받을 것이며,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가르치셨다. 그리하시면서 예수는 신자의 의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가르치셨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5:20).

신구약 성경에 의하면 동성애는 결단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그를 겸손하게 하신 ‘하나의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의학자들의 새 연구에 의하면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라 성중독으로 간주된다. 1993년 동성애 의사 해머(D. H. Hamer)가 동성애가 유전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그는 염색체 Xq28이 남성동성애와 관련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1999년 라이스(G. Rice)는 염색체 Xq28이 남성 동성애와 관련 없다고 「사이언스」(Science)에 발표하였다. 2005년 해머를 포함한 연구팀이 다시 Xq28이 동성애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동성애는 유전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는 결과를 획득한 것이다. 구미 사회 및 한국 사회에서도 수많은 탈동성애자들이 재커밍아웃(recoming out)하여 동성애 성중독에서 치료 받았음을 간증하고 있다.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 하나님 뜻에 끊임없는 자기복종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구별해서 오늘날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다. 첫째, 인간의 유전과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거나 왜곡하는 것이다. 예수는 당시 장로의 유전을 준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본의를 왜곡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말씀 왜곡을 책망하셨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 하였도다 기록하였도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막 7:5-9).

유대인들에게 전통(유전, 전승)이란 단어는 ‘구전’(oral tradition, 갈 1:14)을 가리킨다. 이는 에스라 시대 이후 성문(成文) 율법(written law)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서기관들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그 후에 그 중요성이 커져서 성문율법과 같이 구속력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예수와 제자들의 행위를 문제 삼아 장로들의 유전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예수는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눈에 보이는 율법만을 준수할 것을 강요하는 이들의 위선을 지적한다. 예수는 이들이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고 강하게 책망하신다. 예수는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말씀하신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 것도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막 7:10~13).

예수는 모세의 율법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 부모에게 욕을 하는 자는 죽이라고 했는데, 이 계명에 대해 이들은 고르반(헌물)이라는 말하기만 하면 면제 될 수 있다는 전통을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는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율법(하나님의 말씀)과 대비시킨다. 예수는 하나님의 계명과 반대된 인간적인 기원과 전승에 근거한 유전이란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신 것이다. 역사적 예수는 초기 교회에서 유대인의 유전을 지속적으로 지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이것이 결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신 것이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따르고 있던 장로들의 유전은 일반 대중들에게는 일상생활 속에서 지키기도 힘들었고, 오히려 사람을 얕보는 족쇄가 되었다. 예수는 이러한 장로들의 종교적 유전에서 일반 대중들을 해방시킨 것이다.

오늘날 동성애 이슈가 구미 교회에 이어 한국 교회와 사회에도 강력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중심으로 하는 진보교회 진영에서는 이것이 오늘날의 세계적인 풍조요, 구미 교회까지도 받아들였으니 우리도 받아들이자고 지지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진보교회측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인간적인 전통을 만드는 것으로 동성애를 ‘토에바’로 규정한 신구약 전통을 근본적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세상이나 사람들이나 종교적 집단이 만든 전통을 따라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야 한다. 2015년 별세한 독일의 보편사신학자 판넨베르그(Wolfhart Pannenberg)는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교회는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천명하였다. 필자는 그의 견해에 동의한다. 그의 입장이야말로 역사적 예수의 산상 설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에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도덕적 우월주의 태도를 버리고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 욕심 죽이기를 해야 한다.

동성애가 성경이 금하는 ‘죄’(성중독)라고 냉정히 지적해주는 것과 동성애자들을 정죄한다거나 저들을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것과 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동성애를 성중독 그리고 죄라고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니 그렇게 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복음주의자나 기독교인이나 그렇지 않은 자는 이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이들에 대해 소위 혐오자나 증오자의 범주에 속하는 언사나 행위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거나

성다수자에 속해있다고 교만한 마음이나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만일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자기 의를 뽐내는 위선의 자리에 서는 것임을 각성해야 한다.

예수는 오늘날 신자 된 우리들에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태도를 가르치신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눅 18:9~14)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이 스스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동성애 행위도 하지 않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매주 주정 헌금과 십일조 드린다고 감사한다면 우리는 신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토색, 불의, 간음, 동성애를 하지 않았다는 외형적인 율법 규제이행을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속에 끊임없이 죄의 욕망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겸허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면서 자기 죄 욕망 죽이기 와 예수와 새로운 영적 연합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성경을 인용해서 동성애 관련 차별금지법의 입법 등에 반대하는 것은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일처럼 아주 사소한 일이고, 오히려 교회가 긍휼과 정의를 상실하고 부패하는 것은 낙타를 삼키는 것과 같다는 주장에 대하여 필자는 예수의 산상설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다음같이 보완하고자 한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에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공공선인 정의와 선행을 하는 데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율법을 성취하는 길이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

동성애 관련 차별금지법의 입법 등에 반대하고 저지하는 것은 성다수자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양심과 사회적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이러한 반대운동에 보완적으로 선행운동으로 신자와 교회는 사회적 소외자들, 이주민들, 탈북민들 돌봄 등 사회적 선행 아젠다를 실천하여 사회적으로 신자들 내면에서 사회를 향하여 우리나라는 긍휼과 정의를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

■ 비전통독 수료 간증



/ 박영미 성도(S브릿지공동체)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올해 초 나는 말씀을 읽는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S브릿지공동체에서 진행되는 ‘비전통독’을 들었다. 그때부터 조금씩 말씀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비전통독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어깨근육을 잇는 수술을 받았다. 뼈를 뚫고 잘라내는 수술이다 보니 너무 무서웠다. 엄청난 통증도 동반됐다. 진통제를 먹어도 눕지도, 앉지도, 서지도 못할 정도였다.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나를 위해 비전통독 조장님은 SNS 단체채팅방에 특별중보기도를 공지했다. 조장님의 공지가 밤낮으로 올라와 회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조장님은 SNS 단체채팅방에 말씀 본문도 올려 주셨다. 나는 그때마다 올려주시는 말씀을 읽곤 했다. 며칠 동안 이어졌던 극심한 통증으로 잠을 자지 못해 주위를 돌아다니며 엉엉 울었다. 그날도 어느 때처럼 단체채팅방에 올라온 성경본문 공지에 성경을 펼쳤다. 통독본문은 사무엘하 9장이었다. 사울 왕의 손자인

므비보셋 같은 내 인생

므비보셋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는 다윗을 피해 평생 숨어서 지냈는데 어느 날 다윗에게 발견되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다. 므비보셋은 “당신의 종인 나는 죽은 개 같은 존재”라고 다윗 왕 앞에서 고백했다. 다윗 왕은 므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 왕자처럼 대해줬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 인생이 므비보셋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가 내 안에 쏟아졌다. 내 인생이 므비보셋 같다는 것을 깨달은 것뿐인데 큰 기쁨과 행복이 가득했다. 경건한 척, 겸손한 척, 진실된 척했던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인 것 같다. 꾸준히 성경통독을 하면서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참된 정체성을 다시 발견하게 됐다.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 그 말씀들이 내 삶을 이끌어 주고 있었다는 것을 비전통독을 통해서 깨닫게 됐다.

이번 비전통독을 섬겨주신 강미향 목사님과 전병천 전도사님 그리고 봉사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 열린다성경 수료 간증



/ 진승관 성도(김포공동체)

나는 그동안 여러 번 성경을 읽었음에도 이스라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성경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어려웠다. 읽어도 내 마음에 깊이 와 닿지 못했다. 그러던 중에 ‘열린다성경’ 강의를 우연히 듣게 됐다. 열린다성경을 수강하며 성경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됐고, 성경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다.

강의 중에 “문화는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다”, “성경의 많은 부분은 이스라엘 문화가 배경으로 깔려 있는 상황에서 기록된 부분이 많다”는 말씀에 많은 공감을 했다.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이스라엘의 문화를 배경으로 했고,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나는 성경을 읽어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성경이 쓰인 배경과 문화, 환경 등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었다.

열린다성경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세례 요한이 먹었다는 메뚜기가 곤충이 아니라 식물(쥐엄나무 열매)이라는 사실이다. 이 이야기가 너무 흥미로워서 순모임에서 나눴는데 모두 나와 같은 반응이었다. 그 이후로도 열린다성경에서 배운 흥미로운 성경 이야기를 순원들과 종종 나누곤 했는데 그

이스라엘을 배우다

때마다 모두 흥미로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들과 그림자로 대비하여 설명해주신 로렘나무와 에셀나무, 산지인 예루살렘에서 말을 키웠던 허세의 왕 솔로몬, 무화과나무 열매인 과거와 테어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왜 저주하였는지 등 흥미로운 성경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성경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 특히 올리브 열매를 짜 기름으로 만드는 과정을 예수님의 겻세마네 기도 에 비유하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네 번에 걸쳐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는 찰감으로 사용되었듯이 예수님도 자신을 우리의 찰감으로 주셨다는 것이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보잘 것 없는 겨자씨 같은 베드로를 거목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천국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울 때도 깊은 감동을 경험했다.

열린다성경 강의를 들으면서 성경의 배경이 된 이스라엘에 대해 정말 무지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을 알아가는 시간이 내게 또 주어지기를 소망한다. 틈틈이 이스라엘에 관한 책 등을 보면서 간접 경험을 갖도록 노력해야겠다. 성경을 더 깊게 이해하고 읽으며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

■ 한 청년의 고백



/ 진윤호 형제(인천 WEB공동체)

군에서 만난 하나님 나라

나는 인천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다 2016년 육군 학사장교로 임관해서 전라남도의 한 부대로 발령받았고 올해 6월 말 중위로 전역했다.

내가 섬겼던 부대 교회는 무척 어려운 여건 속에 있었다. 오래된 시설, 열악한 환경, 주일 예배만 인도하고 가시는 지역교회 목사님, 동역할 수 있던 간부들이 모두 떠나 홀로 군 교회를 섬겨야만 했다. 그래도 그 상황에서 내 방법대로 예배를 세워가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머지않아 깨닫게 하셨다. 대학청년부 때 만난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 서빙고공동체의 장로님께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기 시작했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기 위해 서빙고 온누리교회까지 반년 동안 열심히 왕래했고 동반자 과정을 수료했다. 매번 먼 거리를 가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항상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다.

이후 일대일 제자양육에서 받은 은혜를 부대 교회 모임에도 흐르게 하고 싶었다. 그래서 매달 인천 온누리교회 청년부에서 보내주

는 QT를 이용해 찬양팀 연습 전마다 QT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임 시간이 많지 않고 서로 어색해서 어려움이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형제(병사)들의 입술에서 각자 신앙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다. 동시에 예배의 감격이 살아났다. 찬양하는 형제들의 얼굴 속에서 기쁨과 감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한 형제가 나를 찾아왔다. 그 형제는 나에게 “민지 않는 장병들을 긍휼히 여기고 부대와 나라를 위한 기도모임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기도모임 계획까지 스스로 준비해왔다. 그렇게 매주 월요일 점심시간에 모여 함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모임이 시작됐다.

군 교회에서의 섬김이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도움 속에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 계속해서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앞으로 나는 일대일 양육자 과정을 받고자 한다. 입대를 앞둔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있다면 꼭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아 그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를 소망해본다.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쿠찌 선교사(네팔)

“저를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현재 네팔은 종교법과 비자법이 강화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외국인들이 비자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부(이민국)에서는 네팔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특히 한국인들은 무조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라고 의심하고 비자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아 생활하기 위해 한 국립대학의 연구원(리서치) 비자를 받기 위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연구원 비자는 1년 동안 연구하는 주제에 대해 석사 수준의 논문을 써야 하지만 네팔에 거주할 수 있는 명분을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준비했던 비즈니스 비자의 투자금이 올해부터 갑작스럽게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모든 문들이 닫힌 것 같은 막막함과 불안함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다른 한 쪽문을 연구원 비자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주신 덕분에 감사하게도 대학에서 1년 동안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논문 주제를 ‘차오파디’(Chhaupadi, 여성들을 생리기간 동안 생리

헛간 또는 외부에 격리시키는 힌두교 악습. 네팔 서부 지역에서 관행되어지고 있음)로 정해 프로젝트를 제출했고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학교에 적지 않은 연구비를 내아함에도 통과되어 연구원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육부 레터와 모든 구비서류들을 챙겨 가장 험난한 코스인 ‘이민국’에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행된 비자법 강화 이후 이민국의 냉랭한 분위기와 특히 한국인들에 대한 비자 인터뷰 수위가 수치를 느낄 만큼 취소식이라는 이야기들을 전해 들으며 두려움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23년 전 M국에서 이민국 인터뷰 이후 여권에 빨간 추방 도장을 받았을 때의 트라우마 때문인지 숨도 잘 안 쉬어지고, 이민국 갈 생각만 해도 자꾸 눈물이 나서 지난 며칠을 몇 년같이 여기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팔에서 아홉 해를 지내면서 기쁜 순간들도 또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심에 큰 위로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7가지 치명적인 죄(4) - 나태

주인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사랑이 부족할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악이란 무엇입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진실을 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작은 일을 크게 보이게 하고, 큰일을 작게 보게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오해 때문에 갖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버리신다는 오해입니다. 이 오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달란트를 파묻어 버릴 수 있습니다.

셋째, 두려움이 나태의 죄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새 생명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가장 큰 달란트입니다. 이 새 생명은 큰 변화를 일으키게 합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에 사로잡혀 옛사람과 이별하는 것입니다. 익숙했던 죄악의 습관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삶을 실천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왜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삶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나태를 낳지만,
믿음은 신실함과 충성을 낳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딤후 1:7).

두려움은 나태를 낳지만, 믿음은 신실함과 충성을 낳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가 계속해서 배가 되고, 역사되는 것입니다.

나태에 대한 두 가지 정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갈 2:20).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사시도록 역사되는 것이 나태의 죄를 극복한 모습입니다. 나태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옛사람에 묶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계속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육체적인 게으름도 사라집니다. 분주함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마땅히 맺어야 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두 가지 나태의 정의를 살펴보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칼빈 대학의 철학과 교수 레베카 드영(Rebecca K. DeYoung)이 나태를 잘 정의해서 인용해 보겠습니다.

“나태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자아로의 변혁을 거부하는 죄악된 옛 자아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자아,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자아로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땅에 파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줄 수 있는 새 생명을 땅에 파묻어버립니다. 새 생명이 전해졌다는 것은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가 다섯 달란트를 남긴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의 생명으로 끝난다면,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이 나의 옛 육신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땅에 파묻는 것입니다.

나태의 두 번째 정의입니다.

“나태란 하나님의 사랑이 변화시키는 요구에 대한 저항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악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그것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태는 우리의 성화와 거룩함을 방해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일곱 가지 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고, 거부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악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 안에 파묻어버리는 것 또한 악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적어도 받은 만큼 누군가에게 주어야 합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내가 받은 구원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가 남겨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소명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땅에 파묻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또 다른 달란트로 열매 맺는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꼭 한 번 읽어보아야 할 책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통일을 준비해야 할까?



〈북한을 새롭게 알면 통일이 보인다〉
김상수 저 | 두란노 | 13,000원

어느 날 한누리사역 담당 장로님께서 무심코 던진 말씀이 〈북한을 새롭게 알면 통일이 보인다(이하 북새통)〉를 쓰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될 때 온누리교회 양육 프로그램이 북한 주민과 사회를 말씀으로 양육하여 변화시킬 수 있을까?”

탈북민들을 직접 섬기고 양육하다 보면 문화적인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데 과연 한국 교회는 내일 당장 통일이 되더라도 북한 주민을 복음화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다. 나는 장로님의 질문을 한참 동안 곱씹으며 생각했다. 밤새워 고민한 끝에 나 또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 그동안 우리가 북한을 잘 섬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시대의 흐름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통일을 준비해야 할까? 〈북새통〉은 이 질문에 대한 신앙고백을 담고 있다. 한국 교회의 모든 양육시스템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북한 문화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온누리교회도 책임을 가지고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북새통〉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한반도 통일을 내다보는 책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분단의 현실을 보지 않는 게 너무 안타깝다. 또한 분단은 당연한 것이 아닌데 당연히 여기는 시대 풍조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과거 기독교의 통일운동은 좌우의 이념적 대립에 영

향을 많이 받았다. 교회가 정부의 정책을 따라가다 보니 통일성 있는 방향성을 갖고 북한을 바라보지 못했다.

한국 교회의 북한선교가 물량적 선교에 치중된 것도 문제다. 그러다보니 탈북민들을 제자화, 복음화하는데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필자가 〈북새통〉을 통해서 주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일은 정치, 민족, 경제의 논리로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이다. 오히려 정치, 민족, 경제의 통일이 아니라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이 통일되어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젠가 도래할 통일 시대에 문화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탈북민 3만2천 명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인지도 모른다. 통일을 위해 보내준 이들을 남한 사회와 교회가 믿음 안에서 따뜻하게 양육하고 잘 세우지 못한다면 북한에 문이 열렸을 때 어떻게 참된 제자 양육을 할 수 있겠는가. 16년 전 고 하용조 목사님에 의해 세워진 양재 하나공동체는 이런 의미에서 탈북민사역의 밝은 희망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하나공동체에서는 16년 동안 남 북한의 통일연습을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공동체에서 16년 동안 실행해 온 제자훈련

을 요약해서 정리한 것이 이 책의 주요 내용이다. 이를 잘 공부한다면 복음적인 통일 사회의 청사진을 내다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통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일단 통일을 원한다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배워야만 한다. 하지만 막상 북한선교를 하거나 탈북민을 알아가다 보면 시행착오를 겪는 일이 다반사이다. 오랜 분단의 세월로 인해 불신과 이질감이 커져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선교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문화적 간격을 좁히는 오리엔테이션이 필수적인데 이 책은 그러한 용도에 맞게 쓰여 있다. 내가 이 책을 쓸 때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을 일차 대상으로 썼다. 왜냐하면 온누리교회가 통일 운동을 주도한다면 한반도 통일사역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성도님들과 모든 부서에서 누구나 부담 없이 ‘북한’, ‘통일’, ‘탈북민’에 대해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책이 많이 읽혔으면 좋겠다.



김상수 목사
(대전 온누리교회 담임)

Acts 29 게시판

2019년 7월 28일(주일) | 제1256호

14 온누리신문

게시판

2019년 7월 28일(주일) | 제1256호

서빙고 O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비전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을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을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최용준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53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8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루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4: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향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1:00 2F Library / 다문화 예꿈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3:00 Peace 305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 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 예배 주일 11:00/봉사자예배 9:30/네팔어예배 10:30 제2센터/차세대 11: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택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영 팀장(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모임(살롬이스라엘) 일시: 매주 토 오전 8시~10시 장소: 서빙고 시온홀 문의: 010-8550-7930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용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틀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명지 간사(010-5017-3146)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1층 미션홀 문의: 이진숙 집사 010-3212-2664 일.하.세. GUM예배 시간: 매주 토요일 8시 30분 장소: 서빙고 캠퍼스 선교관 101호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오전 10:30 신관 4층 누리홀 온누리가족 나무동산(공원요역) 잔여 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 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함) 동산위치: (재)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산 152-2)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 한 매장 잔여수량(가): 70기 문의: 서충관 팀장(010-3927-0705) 꿈아이놀이터 33기 모집 대상: 22~38개월 일시: 9월 4일~11월 13일 매주 수 10:40~12:40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2층 꿈아이홀 회비: 15만원 문의: 임지희 코치(010-6253-7397) 꿈아이놀이터 교사모집 모집: 음향, 세팅, 찬양, 데코, 반주, 소그룹 등 문의: 김혜영 전도사(010-3174-8107) 온누리 NGO 더멋진세상 해외사역자 모집 분야: 농업, 회계 및 행정 기간: 3년 문의: 이가일PM(02-2271-2246, gaill@abetterworld.or.kr) *자세한 사항은 www.abetterworld.or.kr 에서 확인	양 재 O2.573.9686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재폴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초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렘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 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문의: 조현영 팀장(010-3328-6366) *환우중보, 심방, 전도(사랑홀 환우 요청함) 양재 살롬기도회 대상: 나라와 하나 됨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 매주 월 오후 7시 30분 양재 JDS홀 문의: 송세호 팀장(010-8634-9030)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 10~12시 반 경찬홀 문의: 김은지(010-3285-1726)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시간: 오전 10:30 본관 B3층 JDS홀 인도중보기도모임 일시: 매월 두 번째 월 오후 7시 30분 장소: 양재 온누리교회 충성홀 문의: 010-2735-3807 양재 성찬위원 모집 모집: 매월 첫째 주일 성찬식 봉사 내용: 성찬 떡, 포도즙 준비 및 세팅 작업 문의: 윤석일 팀장(010-5477-1308) 은혜샘물유치원초등학교 교직원 채용 분야: 초등 담임(원서마감 8월 6일) 문의: www.smca.or.kr 참조 *게시판 광고미감목요일 오후 4시
---	--	---	---	--

부 천 O32.322.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7:00/2부 오전 9:00/3부 오전 11:30/4부 오후 2:00/5부 오후 4:00(대청예배)/6부 오후 7:00(부흥예배) 새벽기도 월~토 오전 5:20 분당 차세대 예배 영아부~오전 9:00, 11:30 / 유치부~오전 9:00, 11:30, 14:00 유년부~오전 9:00, 11:30 / 초등1부~오전 9:00 초등2부~오전 11:30 / 유초등부~오후 2:00 중등부~오전 9:00, 11:30 / 고등부~오전 9:00,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오후 7:30 한사랑예배(탈북민) 매주 오후 2:00 3층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매주 오전 11:30 3층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전 9:00 기쁨홀 중국어예배 매주 오후 2:00 두란노홀	수 원 O31.895.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 5부 오후 7:00 대학청년(주일) 대학부 오후 2시(경찬홀) / 청년부 오후 3시(민음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온누리워십 매주 수 오후 7:30 차세대 주일예배 영아부 오전 9시, 11:30 드림홀 유아부 오전 9시, 11:30 조이홀 유치부 오전 9:00, 11:30 소망홀 유년부 오전 9:00(초1~3), 11:30(초1~2) 사랑홀 초등부 오전 9:00(초4~6), 11:30(초3~4) 경찬홀 소년부 오전 11:30(초5~6) 믿음홀 중등부 오전 9시 비전을 / 고등부 오전 9시 믿음홀 차세대 영어예배 오전 11:30 비전을	대 전 O42.825.3642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젊은예배 오후 2시 30분 분당 대학부 오후 2시 30분 누리홀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분당 토요새벽기도회▶ 매주 토 오전 6:0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00 분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분당 차세대주일예배 예꿈(36개월~7세) 오전 09:00 꿈땅(초1~초6) 오전 09:00 영아부 오전 11:30 유치부 오전 11:30 유년부 오전 11:30 소년부 오전 11:30 초등부 오전 11:30 중등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9:00	남양주 O31.56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 3부(청 년) 오후 2:00 분당 / 4부(저녁) 오후 7:00 분당 / 다문화 주일 11:00 4층 온유홀 외국어예배 한디어 토요일 19:00 5층 믿음홀 / 네팔어 토요일 19:00 5층 소망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 3층 분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분당 수요부흥예배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오전 11:30 2층 예꿈홀 / 유치 부 오전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오전 9:00 2층 꿈땅홀 / 초등부 오전 11:30 2층 꿈땅홀 / 중등부 주일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주일 오전 9:00 기쁨홀
평 택 O31.651.968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30 분당 3부 오후 2:00 분당(대학청년) 주중예배 및 모임 화요기도모임 화요일 오전 10:00 비전을 수요오전여성예배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여성예배 수 오후 7:30 분당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11:30 본관2층 꿈이자라는땅 오전 9:00 본관2층 파워웨이브 오전 11:30 파워웨이브교육관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분당 외국어예배 몽골어 예배 11:30 평택M센터 Love Hall 인도네시아어예배 11:00 인도네시아 헬터	인 천 O32.437.9686 ※예배장소 및 시간에 대한 문의는 목회지원실(032-437-9686)로 연락바랍니다. 성인/차세대/사랑부예배 7/7, 14, 21, 28: 송도 컨벤시아 (송도동 6-1) 파워웨이브(중고등부)예배 제너섬 7층(송도동 179-1) 대학청년부, 국제예배 제너섬 7층(송도동 179-1) 주중예배 수요여성/수요저녁/새벽예배: 제너섬 7층(송도동 179-1) 주일예배 성인예배 9시/11:25 오후 1:45 차세대예배 영아/유치/유년/초등/사랑부 11:20, 꿈땅1 부 9:00, 파워웨이브1부 9:00, 파워웨이브2부 11:20, 헤븐 리키즈 오후 13:5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2시, 몽골어예 배 오후 2시	강 동 O2.47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3부(프라미스청년) 오후 2:00 분당 프라미스U대학부 오후 2: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주일)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오전 11:30 기쁨홀 예수님의꿈아이(유치부) 오전 11:30 두란노홀 꿈이자라는땅(유년부) 오전 11:30 드림홀 꿈이자라는땅(초등부) 오전 11:30 사랑홀 파워웨이브 오전 9:00 사랑홀 사랑부 오전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20 분당 수요오전예배 오전 10:30 분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분당	양 지 O31.331.8171 주일 성인예배 1부 예배 / 9:00 / 2층 김사무엘홀(분당) 2부 예배 / 11:30 / 2층 김사무엘홀(분당) 3부 두드림예배 / 14:30 / 지하1층 박모세홀(대청) 주일 차세대예배 드림씨드(영아) / 11:30 / 2층 드림씨드홀(분당 영상 중계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유아) / 11:30 / 지하1층 무어를 예수님의 꿈아이(유치) / 11:30 / 지하1층 위더슨홀 꿈이 자라는 땅(유년) / 11:30 / 2층 아펜젤러홀 꿈이 자라는 땅(초등) / 11:30 / 2층 스코텐홀 파워웨이브(중·고등) / 11:30 / 지하1층 박모세홀 주중예배 새벽예배(월~토) / 5:20 / 1층 시안홀

CGNTV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라이브 참여 안내

<아빠가>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
라이브로 함께 드리는 가정예배에 초대합니다



모집기간

7월 28일(주일) ~ 8월 11일(주일)

모집대상

- 가정예배가 처음이라 어렵고 어색한 분
- 가정예배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
- 온라인 가정예배를 배우고 시도해 보고 싶은 분
- 가족들이 떨어져 지내 가정예배 드리기 어려운 분 (지역 제한 없음. 해외도 가능)
- 주 1회 저녁 7시 이후 4주 정도 지속적 참여 가능한 분

지원방법

카톡 플친 맺고 가정예배 신청하자!

1. 카카오톡 검색창에 “CGNTV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검색 후 친구 추가
2.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참여하기” 버튼 클릭
3. 가정예배 신청서 작성



카톡플러스친구



문의

TALK 카카오톡 1:1 채팅 상담
전화 02-3275-9386

※ 신청 후 자세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